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월 10일(금)

...(윤력 12월 11일)...

Пятница

10 января 2025 г.

№ 1 (1211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이 1월8일부터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진행. 1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주스포츠부)

## 사할린 학교들, 통학버스를 받다

사할린 지역에 5대의 새로운 통학버스가 총당되었다. 이 통학버스는 코르사코브, 아니와, 티모브스코예, 돌리스크 지역으로 보낼 예정으로 새로운 통학버스의 열쇠가 전달됐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에게는 선하고도 좋은 전통이 있다. 아동들을 위해 새로운 통학버스의 열쇠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 4대의 통학버스를 보냈고, 현재 5대의 통학버스가 사할린의 5개 지방에 보내어졌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안전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안전요소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편리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통학버스는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며, 이 버스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고, 위성통신장비 및 GPS가 갖추어져 있으며, 버스 내는 가정의 해를 주제로 한 아이들의 그림으로 장식돼 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먼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버스 5대를 지방자치제에 전달한다."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이 전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 시작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이 1월 8일부터14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경기에 양국의 가장 강한 청소년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22년 중국 장춘에서 치른 동계스포츠게임의 일환으로 중국과 공식적인 회담에서 차기 동계스포츠게임 개최지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선정했다.

사할린은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지역이며, 국제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한 제반시설이 사할린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고 러시아 스포츠부 차관이자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 조직위원장인 알렉세이 모로조브가 언급했다.

1월 8일 144명으로 구성된 중국대표단 (단장 중국 국가체육총국 류기웅 부국장)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도착해 이들을 예식을 갖추어 맞이했다. 대다수의 중국 선수들은 러시아에 처음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후 1시간이 지나 알렉세이 모로조브 러시아 스포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공식 러시아 대표단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선수를 포함한 러시아 대표단은 전체 176명으로 구성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대표단은 총 340명이었는데, 이 중 선수 총

224명(각각 112명씩)이다.

사할린 주는 스키 점프 선수인 공 제니스와 박 폴리나, 알파인 스키 선수인 예고르 코로테예브와 빅토리아 이와누슈코, 스노보드인 이고르 나디르신이 대표한다.

참가선수들은 모두 9개 종목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점프,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피겨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종합 42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

경기 진행은 '고르니 위즈두흐' 스포츠단지과 '위스토크'훈련강습센터, '크리스탈'스포츠회관, '위스타'스프링보드 단지, '트리움프'스키-바이애슬론 단지 - 5곳에서 치르게 된다.

경기 프로그램 외에도 러시아 및 중국의 참가선수들을 위해 사할린의 다양함을 선수들에게 소개할 흥미로운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러시아 및 중국의 전통축제도 진행한다.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 개막식은 1월 9일(목) 저녁 유즈노사할린스크 '위스토크' 훈련강습센터에서 열렸고, 폐막식은 13일(월) 18시에 같은 장소에 할 계획이다. 첫 경기가 1월 10일(금)부터 시작된다.

(본사 기자)

## 2024년 사할린과 쿠릴열도 차량도로 80km현대화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2024년 한 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 정부의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사할린 지역에서 성취된 교통사업들은 노골리키까지의 아스팔트 포장 완료, 코르사코브 항구 개건, 사할린 북해 항로 개척, 도시교통으로서 철도 운영이다.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노골리키까지 전 도로가 단단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올해는 흙스크 지역 -야블로츠노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네고르스크의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이투루프섬에서는 쿠릴스크 - 부레웨스트니크 공항 도로구간 개건이 완료되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국가 기획 덕에 코르사코브, 아니와, 흙스크, 토마리 지역,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19km의 지역 및 지방도로가 개 보수되었다.

사할린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추진한 가운데 최

근 몇 년간 천연가스 및 전기로 구동되는 버스 350대 이상을 구입했다. 2024년에는 친환경 버스 106대를 구입해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티모브스코예, 네웰스크, 흙스크, 코르사코브, 돌리스크에 전달했다. 철도교통도 크게 발전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에서 승객의 흐름은 지난해에 비해 40%나 증가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러한 철도교통 이용률의 증가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서 편리한 철도 버스 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승객들이 교통체증 없이 신속하게 장거리를 이겨내고,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환승의 허브를 만들었다. 또한 루고위예와 볼쇼이 엘란 지역에 새로운 지선철도를 건설했다. 외곽 지역과 연결과 장거리 이동을 위한 객차8량을 구입해 교통수단을 개선했으며, 〈도시교통편으로서 철도〉기획 실행을 지역 도로철도 사업부의 과제로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에는 '로자 타운' 교통망 건설과 '시티몰'과 '자보드스코이'의 통합 정류장 현대화, '테크노파크'와 '아그로리제이'에 정류장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해상운송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이 이뤄진 가운데 코르사코브 항구에서는 개건이 시작되었고, 사할린은 처음으로 북해항로의 기착지가 되었다.

사할린주 도로철도사업부의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우리는 북해항로의 연안항행 노선에 코르사코브 항구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정부 연방기관과 처음으로 협약을 맺었다. '레디 데' 선박은 아르한겔스-코르사코브까지 항로를 따라 운항해 39일이 걸렸고, '사스코 알단' 선박은 상트페테르부르크-코르사코브까지 항로로 33일이 걸렸다. 이는 '밤'과 '트란시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2024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 · 행사 · 사건

2024년에 세계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여전히 사할린 주민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러시아와 한국간 항공편 직항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한 것도 사할린동포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2023년 4월에 사할린동포사회에서 생긴 큰 갈등으로 동포사회는 지금도 화합을 못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많은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새고려신문은 2024년에 창간 75주년을 맞았다.

(본사 편집부)

**1월 9일**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초등학생 신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새해를 축하하며 '소원의 율카'행사 일환으로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에게 바이칼 여행을 선물하였다. (본지 1월 12일호)

**1월 1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중환) 주최로 연례 한인디아스포라 속기 체스 경기 개최. (본지 1월 26일호)

**1월 16일** - 출판의 날 맞아 새고려신문사는 '한국어 및 한민족 문화 유지에 대한 공로와 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본지 1월 20일호)

**1월 13-20일간** - 한국 KBS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밥상' 촬영팀이 사할린을 찾아 사할린동포와 사할린 향토음식을 취재. 이에는 새고려신문사도 적극 협력함. (본지 1월 26일호)

**1월 2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중환) 주최로 '뽕새 만들기'요리교실 열어. (본지 1월 26일호)

**1월 22일** -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가 신년 모임에서 한민족 언어와 문화 보급 관련 후원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을 표명. (본지 1월 26일호)

**1월 27-31일간** - KIN(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대표와 '이스크라21'제작사의 김지운 대표가 사할린을 방문하여 코르사코브 어르신들, 사할린한인사회계 대표들과 만나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나누

고, 사할린한인 상황을 파악. (본지 2월 2일호)

**1월 28일** - 새고려신문사 주최 아래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의 일환으로 한 이리나 중국 점성술 바지 전문가와 만남의 행사 진행. (본지 2월 2일호)

**2월 2일** - 음력설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기획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웃놀이대회(전통놀이 한마당 웃놀이)가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동양학부,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주 한국어교사협회, 사할린주 청년회 주최로,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 후원으로 개최. (본지 2월 9일호)

**2월 9일** -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사할린주한인협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설 명절을 축하하며, 특별 군사작전 참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 임 엘비라와 이 파벨 임원들에

게 '사할린 주 - 전선' 4급 메달을 수여. (본지 2월 16일호)

**2월 10일은 음력설** - 이날을 맞아 여러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음력설 기념행사를 개최.

**2월 8일(목)**은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부라쉬카' 제9유치원(루고위에 마을), 2월 9일(금)은 코르사코브 제2학교에서 즐거운 설 행사 진행,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2월 10일(토)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도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바운티홀'레스토랑에서 구정행사를 개최하고, 2월 11일은 '에트노스'아동예술 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는 '골로스'노래경연대회를 진행. (본지 2월 9일, 2월 16일호)2월 15일 - 모스크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모스크바),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의 주최로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제1회 한-러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이에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 학술편집부 부장인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 참석. (본지 2월 23일호)

**2월20일** - 우글레고르스크를 방문한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게오르기 카를로브는 적극적인 시민활동과 교육행사 조직 협조로 우글레고르스크지역 한인회 강복숙(류보위 유리예브나) 회장에게 감사장 수여. (본지 2월 23일호)

**2월 25일** - 한국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고려인협회의 제3회 결산 및 선거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고려인협회의 신입회장 선출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여 다수가결로 사할린 출신의 정영순 인천대학교 초빙교수가 선출돼. (본지 3월 1일호)

**2월 25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조성용 화가와와 만남을 주최. (본지 3월 1일호)

**2월 27일** - <러시아는 우리다>행사 일환으로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 연방 민민예술가 칭호 수혜자인 아니타 초이(최) 가수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만남. (본지 3월 1일호)

(다음 호에 계속)

## 이모저모

### 사할린주, 복권 추첨에서 가장 행운의 지역 돼

사할린의 주민들이 <러시아 로또>새해 복권추첨에서 10억 루블리의 주요 상금을 획득하여 행운의 주민이 되었고, 총로또 상금 획득에 따라 상위 3위 안에 들었다고 '스토로모프' 전 러시아 국영 복권발행사가 전했다.

새해 명절 1604회 복권추첨에서는 러시아 복권추첨에서 기록적인 상금인 36억 루블리 이상이 걸린 가운데 120만장의 복권이 당첨되었다. 10억 루블리의 주요 당첨금은 사할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복권을 등록한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사할린주는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와 나란히 가장 큰 당첨금을 획득한 상위 3개 지역 안에 들었다. 모스크바 외곽의 주민이 3억1천5백만 루블리를, 모스크바시의 주민이 2억1천2백만 루블리에 당첨되었다. 이와 함께 가장 운 좋은 당첨 지역들로 크라스노다르스 변경, 스웨르드롭스크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레닌그라드주, 로스토브주, 첼랴빈스크주가 포함됐다.

새해 복권추첨에서는 100만 루블리의 복권 100개가 당첨되었고, 그중 90개의 당첨복권을 가진 당첨자들이 러시아 여러 각지에서 나왔다. 또한 81명의 참가자들이 동시에 30개의 숫자들을 모두 맞추리하면서, 남은 1천만 루블리는 서로 분배되어 각각 12만3천 루블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самым везучим регионом в лотереях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оказались самыми удачливыми в новогоднем тираже «Русского лото», сорвав главный приз в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и войдя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по общей сумме выигрыш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лотерей «Столото».

В праздничном тираже № 1604 был разыгран рекордный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гослотерей призовой фонд — более 3,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ыигрышными стали почти 12 миллионов билетов. Главный приз в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достался участник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ему свой билет с помощью номера телефона, оформленн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 наряду с Москвой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ью вошел в тройку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и крупными общими суммами выигрышей. Жители Подмосковья и столицы разделили между собой 315 и 21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Также в список самых везучих регионов вошли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Сверд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Ленинградская, Ростовская и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и.

В новогоднем тираже было разыграно 100 призов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90 из них нашли своих обладателей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России. Еще 81 участник закрыли все 30 чисел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разделили между собой оставшиеся 10 миллионов, получив по 123 тысячи рублей каждый.

### 동부군관구 군인들, <소원의 율카>행사의 일환으로 아동들을 탱크에 태워

1월 2일(목) <소원의 율카(성탄 트리)>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동부군관구 전차부대에서 특수군사작전 참전병들의 자녀들에게 T-80탱크에 태워 시연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아이들은 많은 찬란한 추억을 쌓으며,자신들의 소원이 이뤄진 것에 모두가 만족해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동부군관구 사단 사령부가 준비한 제과 선물을 선사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일부 군부대 및 전 사단들에서 합동으로 <소원의 율카>자선행사를 진행했다. 전통대로 아이들은 새해 율카에 소원을 담은 봉투를 걸어두었고, 동부군관구의 군부대 및 사단장들은 율카에서 봉투를 떼내어 읽었다.

###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ВО покатали детей на танке в рамках "Елки желаний"

2 января на сахалинском танкодром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ВО в рамках акции "Елка Желаний" прокатили дет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на танке Т-80. Ребята испытали много ярких впечатлений, и все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своим исполненным желанием. Также каждый ребенок получил от командования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ВО сладкий подаро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Елка Желаний" прошла во всех соединениях и воинских частях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Традиционно пожелания ребят были развешаны в конвертах на новогодних елках, которые снимались и зачитывались командованием соединений и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ВВО.

### <저렴한 생선> 600톤 이상, 1년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판매돼

2024년 한 해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저렴한 생선>기획의 일환으로 600톤 이상의 생선이 판매되었다. 농산업 박람회가 시민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며, 미식마라톤의 일환으로 생선요리 6000 세트 이상이 시식 판매되었다.

시행정부는 생선 유통의 발전과 제품보관을 위한 필수적 기준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1500개 이상의 생선 판매점과 500개의 요식업체로 주민 1인당 판매량에서 선두에 서 있다. 특히 사회적 상점들과 일반 직거래시장,

지역 생산업체들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도심에는 36개의 사회적 상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랜드 상점망들은 222개의 생산제품을 갖추고 있다. 베레즈냐크 마을에서는 '나로드니(국민)', '푸룩토와야 라브카(과일 상점)'가, 스타로루스스코예 마을에서는 '체레웬스키(마을의)' 등 3곳에 생선 판매를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문을 열었고, 9개의 생선 직거래장터와 생선시장 한 곳이 조성되었으며, 시 전역에서15회의 생선박람회 개최되었다.

<저렴한 생선>기획은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생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어 이에 16개의 상점들이 참여하여 신선한 생선 600톤 이상이 판매되었다.

미식축제와 '물고기들의 섬', '만두의 날' 축제들은 지역 특산물을 대중화하고, 미식관광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2024년 '바다의 선물들' 미식마라톤에 10개 카페와 요식업체들이 참가하면서 생선요리 3,253세트가 판매되기도 했다.

### Более 600 тонн "Доступной рыбы" прода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го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2024 год продали более 600 тонн рыб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ступная рыб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ярмарки стали популярными среди горожан, и более 6 тысяч сетов были опробованы в рамках гастрономарафон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л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уровня товарных запас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лидирует по объемам продаж товаров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 более чем 1500 магазинами и 500 объект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циальным магазинам, универсальным ярмаркам и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городе действует 36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а сеть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включает 222 объекта. В селах открылись три новых объекта: магазины "Народный" и "Фруктовая лавка" в Березняках, а также "Деревенский" в Старорусском. Создано 9 ярмарочных площадок и один рынок, проведено 15 общегородских ярмарок.

Прое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продолжа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население качественной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16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и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600 тонн свежеморской рыбы.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фестивали, такие как "Остров Рыба" и "День пельменя", способствуют популяризации местных продуктов и развитию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В 2024 году гастроно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собрал 10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которые продали 3253 сета.

### 사할린주에서 2025년을 <행복한 어머니의 해>로 선포

사할린주에서는 2025년을 '행복한 어머니의 해'로 선포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8면에 계속)



## 'CIS 고려인 한국어교사' 모국방문, 역량 키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 '2025 CIS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심화과정' 참가



‘2025 CIS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심화과정’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에서 온 20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이 참가하는 ‘2025 CIS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심화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어 교육 실습, 한국어 교수법 특강, 협업 프로젝트 ‘연구보고회’등을 통해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차세대 고려인 동포사회에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중·고급 수준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립극장에서의 마당놀이 관람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의 훈민정음 해례 미디어아트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게 된다.

협력센터는 이외에도 연구보고회, 현장적용 교구 개발, 전통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영근 센터장은 2일 오후 개최된 개회식에서 “고려인 한국어 교사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자 민족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이 고려인 후세 교육과 동포사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함박마을 주민과 고려인이 뭉쳤다

함박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위원장 김경원) 임원들과 인천고려인엄마들(대표 차 예카테리나) 가족들은 12월 30일 인천 연수1동 함박마을 마리공원에서 약 50여 명이 모여 마리공원 내 공중화장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쓰레기를 줍기 위해 어린 자녀들까지 나와 힘을 보탰다.

함박마을은 고려인 동포가 약 9천여 명이 거주하여 면적대비 고려인 동포 최대 밀집지역이 된 지 오래다.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고려인 자녀들이 8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함박마을은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 놀이터가 없고,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결정적으로 지난 12월 27일 마리공원 내 화장실 외벽과 내부에 보기 민망한 낙서들이 난무했다.

이에 인천고려인엄마 대표와 디아스포라연구소(박봉수 소장)가 만나 고려인 스스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관공서의 동의 하에 외벽의 페인트 작업으로 말끔하게 보수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려인엄마단체 대표 차 예카테리나



는 “어느 나라나 청소년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니 단지 고려인 자녀들의 문제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청결과 질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디아스포라연구소 박봉수 소장은 “이렇게 모여 페인트 작업을 한 것은 단지 마을의 환경 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찰과 그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마을 주민이 함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함박마을 내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글과 사진 디아스포라연구소 제공)

## 국악신문사, 유아 한복 10벌 기증

지난12월 16일(월) 국악신문사 기미양 대표가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과 서울에서 만나 어린이 한복 10점을 사할린한국교육원에 기증하였다.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돌잔치를 할 때 한복을 입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과 더불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사이버외교사절단(VANK)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돌잔치 때 한복을 입히도록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한복을 입혀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부모님들은 사할린한국교육원(8-4242-505-696)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사할린한국교육원 측에서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주내 장애인재활센터 증축 건물, 가동 준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할린 주 장애인 재활센터 증축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사할린주 알렉세이 벨릭 총재가 중요한 사회적 시설의 상태를 점검했다.

4000km<sup>2</sup>의 3층 건물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 질환이 있는 사할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특수군사적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건립됐다. 추가 재활센터에서는 집중치료를 요하는 환

자61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이 시설은 병원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건축자들은 마무리 단계로 가구와 의료장비를 운반해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획을 수행했다. 건설작업은 모두 완료되었다. 건물은 이제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곧 추가 재활센터를 의료진들에게 맡기고, 의료진들은 일정에 따

라 중증 질병 및 외상으로 현대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사할린의 주민들을 접수해 치료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재활센터의 전문의들은 매해 100명 이하의 주민들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람들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재활치료를 받으며, 사할린의 의료진이 취급하는 현대적 장비는 기본적인 환자 건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교정하는 데 사용된다.

## 2024년 사할린과 쿠릴열도 차량도로 80km 현대화

(1면의 계속)

사할린의 기업가들은 사할린 지역으로 화물운송에 더 새롭고 수익성이 높은 방법에 도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두 개의 항로 개설로 사할린에 건축자재, 장비, 식품을 실은 82대의 컨테이너가 도달했다."고 말했다.

코르사코브 항구에서는 '빅브릭'항구 선착장 개건이 시작되었다. 개건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규모 생산가공센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르사코브 항구의 수중 준설작업을 시

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카로브 지역에 다기능 화물운송항구 건설을 위한 구역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기획의 실행을 위해 연방 자금이 배정되었다.

운송 분야의 중대한 기획들 가운데 '대대적인 청소'로 사할린의 해역에서 3년간 3,400톤 이상의 고철들을 제거했고, 2024년에 세웨로-쿠릴스크와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홈스크 지역들에서 침몰된 선박 38척을 제거했다. 연방기획을 통해 다년간 해양환경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생태적 환경을 개선하여 사할린 지역의 관광

적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핵심적 효율성 지표에 따른 총결산 회의에서 주지사는 운송 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연방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화물운송을 도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서부간선도로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사할린 지역의 주요 공항에 현대적 이착륙 활주로를 건설하고, 파라무르 섬에 이륙할 주로를 연장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세웨로-쿠릴스크 간 직항 항공편을 개설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청-태권도진흥재단, 동포사회 태권도 확산에 앞장선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합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전 세계 동포사회의 태권도 확산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협력한다.

두 기관은 지난 12월 23일 전북 무주군에 있는 태권도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 세계 동포사회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우리 동포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

릴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MOU에는 ▲태권도를 통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해외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동포 초청연수 시 태권도원 시설 활용 및 콘텐츠 지원 ▲재외동포 대상 태권도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MOU 체결로 동포사회 행사 시 태권도 콘텐츠 제공,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 초청 연수시 태권도원 시설 활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덕 청장은 MOU 체결식

에서 “태권도는 해외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태권도가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어 “특히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시에도 태권도진흥재단과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сь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Игры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8 по 14 января. Соревнования объединяют сильнейших молодых спортсменов двух стран.

"В 2022 году на официаль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с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 рамках предыдущих Игр в Чаньчуне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ыбра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естом следующих зимних состязаний. Сахалин богат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Здесь есть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ртов",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на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молодежных зимних играх Алексей Морозов.

8 январ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ржественно встретили гостей из Китая. Делегацию в составе 144 человек возгл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Глав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КНР Лю Гоюн.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спортсменов КНР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впервые прилетели в Россию.

Час спуст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землился рейс с официальной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ей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Алексеем Морозовым. Общй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насчитывает 176 человек.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было 3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з России и Китая, из них спортсменов – 224, по 112 с каждой стороны.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Играх представляют летяющие лыжники Денис Гон и Полина Пак, горнолыжники Егор Коротеев и Виктория Иванушко, а также сноубордист Игорь Надыршин.

Спортсмены разыграют 42 комплекта наград в девяти дисциплинах: в горнолыжном спорте, конькобежном спорте (шорттрек), керлинге, лыжных гонках, сноуборде,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фристайле, прыжках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и лыжным двоеборье.

Площадками Игр станут склоны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трассы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трамплин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та»,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Вход для зрителей на вс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вободный и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количеством свободных зрительских мест.

Кроме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наших и кита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дготовлены интерес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знакомят ребят с сахалинским колоритом. А такж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рус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традиций.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молодежных зимних иг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вечером 9 января в УТЦ «Восток». Закрытие пройдет здесь же 13 января в 18:00. Вход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м билетам ввиду огранич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Зрителями стану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 спортсмены, тренеры, делегаты двух стран,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Первые старты Игр пройдут 10 января.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сс-центра РКИ)

## В РК впервые за девять лет увеличилась рождаемост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родились 242.334 младенца, что на 3,10% больше, чем в 2023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3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отмечен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вять лет. Мальчиков родилось на 5.512 больше, чем девочек. Хотя население продолжало сокращаться, состави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18.423 человека, сокращение замедл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годом.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51.217.221 человек.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южнокорейцев составил 45,3 года. При этом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мужчин более чем на 2 года ниже, чем женщин. Для мужчин он составил 44,2 года, а для женщин 46,5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арше 65 лет почти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численность детей до 14 лет.

## В России появились умные колонки в стиле творчества Виктора Цоя

Компания SberDevices представила лимитированную коллекцию умных колонок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байопик-выставки «Виктор Цой. Легенда».

Музыкальные девайсы стилизованы под творчество рок-музыканта и группы «Кино».

Дизайн музыкальной колонки отсылает к обложке альбома «Звезда по имени Солнце», который был выпущен в 1993 году.

Колонку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включить музыку из миллиона треков с уточнением о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ках Цоя. Также можно просто задать команду воспроизвести

песни Цоя, обратившись так: «Салют, включи песни Цоя!».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риобрести колонку можно будет в 2025 году в магазине байопик-выставки о Цо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анк Сбер выпустил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с дизайном, вдохновлен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группы «Кино».

Дизайнером карт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банка выступил Александр Цой (сын Виктора Цоя).

В 2023 году Банк России вы-



пустил в обращение памятную серебряную монету «Творчество Виктора Цо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МИ)

## Считать чужие деньги

**Сеул, 8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верхбогатые ж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долю которых приходится менее 1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 начавшемся году будут выбирать инвестиции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риска из-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KB Financial Group, в 2023 году 461 000 южнокорейце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0,9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владели финансовыми активами на сумму 1 миллиард вон (689 800 долларов). Их финансовые актив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ценивались в 2 826 триллиона вон. Эта сумма выросла на 2,9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а 58,6 процента от все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омохозяйств. Финансовые активы — это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депозиты и финансов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дукты, такие как акции и облигаци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ыстро и легко обналечить.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денежным потокам они имеют преимущество перед нефинансовыми активами, такими как недвижимость, сырьевые товары, патенты и торговые марки,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иносят прибыль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Из

461 000 человек 63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сохранят инвестиции в акции на прежнем уровне в 2025 году, а 21,8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сократят инвестиции в акции. Только 15,3 процента сказали, что увелича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нвестиции. Что касается депозитов, 73 процента из опрошенных заявили, что в начавшемся году они не изменят сумму своих депозитов. Другие 11 проц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будут хранить больше наличных в качестве депозитов, а остальные 16 процентов ответили, что обналечит часть депозитов.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состоятельные люди с осторожностью относятся к агрессив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 говорится в отчете, в котором упоминается стагн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стране из-за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за рубежом. При этом 32,8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в основном накопили состояние за счет доходов от бизнеса. Еще 26,3 процента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накопили состояние за счет инвестиций в недвижимос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0,8 процента этих респондентов также унаследовали о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едвижимость и другие виды имущества.

## Чтение книг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круги своя

**Сеул, 5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Впервые за семь лет академические учебники не вошли в топ-10 самых часто запрашиваемых книг студентами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SNU), ведущ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Южной Кореи. В топ-10 самых часто запрашиваемых книг в библиотеке SNU преоблад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Многолетняя традиция преобладания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ниг в топе самых часто запрашиваемых книг была нарушена»,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SNU. Этот сдвиг отражает растущ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Text Hip («текстового хиппизма») — культурной тенденции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коления Z и молодых миллениалов. В этом термине сочетаются слова «текст» и «хиппи», ч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чтение — это крут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изначально брали в руки книги, чтобы казаться более продвинутыми, но потом поняли, что им нравится читать. Эксперты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текстовый хиппизм»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культурный тренд, определяющий целое поколение, а не исчезнуть как мимолетная тенденция. Книга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лауреата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Хан К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была самой позимствованной книгой в библиотеке SNU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маны, эссе и проза заняли последующие места.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с 2017 года, когда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ниги исчезли из списка SNU, входящего в топ-10 самых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названий. До 2023 года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чаще

всего брали такие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как «Основы музыки», «Общая статистика» и «Линейная алгебра», поскольку студенты отдавали предпочтение успеваемости и поиску работы, а не чтению романов и поэзи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исчезла традиция обмениваться учебниками между студентами в аудиториях и студенты все чаще обращались в библиотеку. Одна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книг в SNU преобладали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друг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наблюдалась аналогичная тенденция.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движение Text Hip может стать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для поколения, сформировавшегося под влиянием сверхконкурентных вступите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Движение Text Hip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где молодые читатели делились фотографиями обложек книг и любимыми отрывками,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свои предпочтения. Хотя не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это движение поверхностным или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м, многие молодые читатели благодаря этой тенденции открыли для себя более глубокую страсть к чтению. «Молодые читатели в возрасте 20 лет с детства привыкли к цифровому контенту, поэтому печатный текст кажется им свежим и стильным»,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здательской индустрии. — Многим надоели короткие пост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они открывают для себ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чтения книг».

## Семь новых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вошли в Оксфордский словарь

Семь слов, связанных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 «dalgona» (талгыона), «hyung» (хён), «pogaebang» (норэбан), «maklae» (маннэ), «jjigae» (чигэ), «tteokbokki» (ттокпокки) и «pansori» (пансори) — добавлены в Оксфордский словарь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мках обновления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Добавленные слова связаны с «К-культурой»,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широ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в англоязычных странах. Талгыона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корейская сладость, приготовленная из растопленного сахара с добавлени-

ем пищевой соды, обычно продающаяся в виде плоских форм с вырезанными на них рисунками». Маннэ определено как самый младший в семье или группе, в том числе, самый младший участник К-поп группы. Ттокпокки объясняется как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состоящее из цилиндрических рисовых клёцек, приготовленных в остром соусе на основе перечной пасты. Добавление этих слов в словарь отражает, насколько широко К-культура распространилась по всему миру.

KBS World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КС приступит к слушаниям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ю 14 январ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С) РК приступит к слушаниям дела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ю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14 январ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лушаниях, состоявшихся 3 января. Группа адвокатов ответчика призвала тщательно рассмотре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 для проверки на предмет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заявил Пэ Чжин Хан, один из адвокатов Юн Сок Ёля. Он не рекомендовал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рмин «мятеж». Начиная с 14 декабря, когд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инял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дела об импичменте, у него есть 180 дней, чтобы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поддержан, Юн Сок Ёль будет отстранён от должности, и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должны пройти внеочеред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отклонён, он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 в должности.

## Чхве Сан Мок приня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послов девяти стран

7 январ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К президента Чхве Сан Мок приня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новых послов девяти стран, приступивших к работе в Сеул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реди передавших грамоты были посол Китая Дай Бин и посол Кубы Клаудио Рауль Монсон Баэса, а также новые послы Восточного Тимора, Сьерра-Леоне, Эквадора, Панамы, Габона, Непала и Греции. Верительная грамота - это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равляющего посла, представляет главе принимающ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окумент уведомляет о назначении нового дипломата и выражает просьбу оказать ему доверие.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послы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пии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 оригиналы вручают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 Тела всех жертв катастрофы в аэропорту Муан переданы семьям

6 января, на девятый день после катастрофы самолёта компании Jeju Air в аэропорту Муан, завершилась передача тел всех 179 жертв их семья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хоронные церемонии завершатся до 10 января, а на 18 январ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общая мемор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Тем временем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ичин катастрофы продолжается. Бортовой речевой самописец, расшифровка данных которого завершена, передан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анализа в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вет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США. Эксперты изучают двигатели самолёта и сохранившиеся части приборов из кабины пилотов. Поскольку сбор со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аэропорта всех предметов,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катастрофе, потребовал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аэропорт останется закрытым для полётов до 14 января.

## 27 января в РК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ъявить 27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част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и внутренний туризм в праздник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иходится на 29 январ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выходными являются также день до праздника и день после него. С объявлением 27 янв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нём жители РК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шесть дней подряд - с 25 по 30 января. Если взять отпуск в пятницу, 31 января, то получатся девятидневные каникулы.

## В РК вводятся мобильны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иностранцев

С 10 января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смогут хранить свои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в смартфонах, используя новое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ах юстиции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ложение использует технологии блокчейна и шифрован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мошенничества.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утечку личных дан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немедленно заблокировано в случае утери смартфона.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дётся посетить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чтобы оформить IC-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которое будет изготовлено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После этого станет возможна регистрац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мобильной версии в приложении. Сервис приложения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на англ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для все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рше 14 лет.

##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в вузах повысится

Ассоциация ректоров част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К объявила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ректоров 151 университета-члена ассоциации. На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латы за обучение, ответили 90 ректоров. 53,3% из них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повысить плату, 42,2% пока н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и лишь 4 ректора выразили намерение заморозить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61 университет отказал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просе, что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проблемами набора новых студентов. Если в 2022 году лишь 6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высили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же 26. В этом году их будет гораздо больше.

RKI

## КНДР заявил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хенья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рафона в апрел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очередного Пхенья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рафона, возобновив тем самым прерванную на шесть лет традицию. Событие, намеченное на 6 апреля, станет первым за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и может символизировать начало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появилос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КНДР, где размещено приглашени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арафон будет разделен на две группы: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любителей. Для бегу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истанции полного марафона (42,195 км), полумарафона (21,097 км), а также дистанции в 10 и 5 километров. Маршрут охватывает знаковые места Пхеньяна, такие как стадион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аллею Триумфа, башню Дружбы, Большой театр Пхеньяна и Дворец школьников Мангёнд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оплат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расходы на перелет и проживание. От каждой страны приглашаются в качестве "профи" один мужчина и одна женщина. Любителям же придется оплачивать все расход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ли искать спонсоров. Взнос за участие в забеге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сстояния - от 70 долларов за дистанции 5 и 10 км до

150 долларов - за полный марафонский забег (42,195 км).

Напомним, что Пхенья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в апреле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известного как День Солнца. Последний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2019 году, после чего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итики высказали мнение, что марафон станет не только спортивным, но и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 это сигнал о постепенном открытии страны после строгих 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 момента заявления о частичном снятии запрета на въезд в сентябре 2023 года КНДР пускала лишь ограниченные группы иностранцев, включая дипломатов и туристов из России. Тепер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хоже, делает первые шаги к возвращению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арену. Марафон может стать частью стратегии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через туриз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событие вызовет интерес среди бегунов и любителей экзотических путешествий, желающих лично посмотреть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Доставить на допрос сил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ледователи готовят штурм резиденции Юн Сок Ё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похоже, назревает повторе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следователями,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задержать Юн Сок Ёля, и Службой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хранники стали превращать расположенную в центре Сеула резиденцию 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 настоящую крепость, готовясь к очередном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тогда как следова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й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лиц и полиция намерены устроить полноценный штурм. Не исключают операцию в стиле действий спецназа - с высадкой штурмовых групп с вертолетов и применением бронированных маши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3 января первая попытка задерж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сорвалась, Управление расследований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лиц подверглось жесткой критике за слабую подготовку.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в итоге признал, что они не ждали, что Служба охраны окажет так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а привлеченных к исполнению ордера 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олицейских было недостаточно и даже меньше, чем телохранителей президент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3 января срок действия ордера истек, но Управление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7 января - получило его повторно. Срок действия при этом был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раза) оставлен в тайне, чтобы не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Службе охране президента определить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ую даты повторной попытки задержания Юна. Начальник же Управления пообещал депутатам, что "не планирует больше запрашивать ордера", так как собирается на этот раз все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больше сбоя не произошло.

Судя же по настрою, противостоящие стороны готовятся к ожесточенной битве, которая в чем-то может напоминать штурм хорошо укрепленной крепости, тем более что здание резиденции само по себе выглядит как какая-то военная база, а не жилой особняк.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за прошедш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лужба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существенно усилила ранее созданные на подступах к зданию, где живет Юн с женой, три линии "обороны". Каждая из линий состоит теперь из "стен", составленных из подогнанных вплотную друг к другу автобусов и автомобилей Службы охраны. После "стен" натянута несколько линий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и, а уже после нее будут стоять телохранител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стараться не пустить 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олицейских, нацеленных на задержание Юн Сок Ёля.

Правда, как в Управлении, так и полиции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они сделали выводы, и теперь намерены подойти к штурму по всем законам во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гласно попавшим в прессу утечкам, полиция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численный перевес в два-три раза. Телохран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проходу следователей и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будут вытаскивать по одному и тут же задерживать за оказани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отрудникам, находящимся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Телохранителей будут блокировать по два-три

сотрудника полиции и доставлять в ожидающие их автобусы, чтобы отправлять затем в полицейские участки для допросов.

По поводу же преодоления "стен" из автобусов и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и выдвинуты раз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Одни эксперты полиции предлож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лестницы и настилы, другие же настаивают подходить к делу основательнее - подогнать к резиденции бронированные автомобили и полицейские БТ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таскивать автобусы. Колючую проволоку предлагают либо давить, либо резать, создавая проход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и полиции заявили также, что они не хотели бы прибегать к задействию групп спецназа полиции, которые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борьбы с террористами, но не исключают такого варианта, когда в резиденцию могут быть заброшены штурмовые команды. Предлагается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ртолеты, высадив спецназ прямо на крышу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то сразу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тремя "линиями обороны". В общем, готовится серьезная операция.

В Службе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всеми силами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лидера. Были также намеки на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ружия, которое есть у телохранителей. Впрочем, варианты с жертвами хотели бы избежать обе стороны.

В любом случае ожидается второй и уже 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й раунд штурма резиденции Юн Сок Ёля для его задержания и силовой доставки на допрос. Юн же через своих адвокатов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заявил, что считает выданный судом ордер незаконным, а Управление и полицию - не имеющими полномочий на его задержани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мьера вице-премьер Чхве Сан Мок отказывается вмешиваться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грая тем самы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руку Юн Сок Ёлю.

Вместе с тем, растет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ни указывают, что на кону сейчас уже не только судьба Юн Сок Ёля, но и вопрос доверия ко всей судебной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страны. Если Юна не удастся задержать и доставить на допрос, то получится, что любой человек в Коре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еоретически, может безнаказан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уда 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допросов, даже если его обвиняют в серьезн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Напомним, что Юн Сок Ёля проходит главным подозреваемым в деле о мятеже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полномочиями в ходе объявления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14 декабря парламент объявил Юну импичмент, отстранив его д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от исполнения функци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ам Юн заявил, что считает свои действиям с введение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равильными, намерен бороться до конца и собирается вернуться в кресл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8 января 2025 г.)



# 을사년

음력설  
1.29  
한식  
4.5  
단오  
5.31  
초복  
7.20  
중복  
7.30  
말복  
8.9  
추석  
10.6  
성탄절  
12.25

|   | 1월 (음력 12-1월)   |          |          |            |           | 2월 (음력 1-2월)    |          |          |            |           | 3월 (음력 2-3월)    |          |            |           |           |
|---|-----------------|----------|----------|------------|-----------|-----------------|----------|----------|------------|-----------|-----------------|----------|------------|-----------|-----------|
| 월 |                 | 6<br>7   | 13<br>14 | 20<br>21   | 27<br>28  |                 | 3<br>6   | 10<br>13 | 17<br>20   | 24<br>27  |                 | 3<br>4   | 10<br>11   | 17<br>18  | 24<br>25  |
| 화 |                 | 7<br>8   | 14<br>15 | 21<br>22   | 28<br>29  |                 | 4<br>7   | 11<br>14 | 18<br>21   | 25<br>28  |                 | 4<br>5   | 11<br>12   | 18<br>19  | 25<br>26  |
| 수 | 1<br>12.2       | 8<br>9   | 15<br>16 | 22<br>23   | 29<br>1.1 |                 | 5<br>8   | 12<br>15 | 19<br>22   | 26<br>29  |                 | 5<br>6   | 12<br>13   | 19<br>20  | 26<br>27  |
| 목 | 2<br>3          | 9<br>10  | 16<br>17 | 23<br>24   | 30<br>2   |                 | 6<br>9   | 13<br>16 | 20<br>23   | 27<br>30  |                 | 6<br>7   | 13<br>14   | 20<br>21  | 27<br>28  |
| 금 | 3<br>4          | 10<br>11 | 17<br>18 | 24<br>25   | 31<br>3   |                 | 7<br>10  | 14<br>17 | 21<br>24   | 28<br>2.1 |                 | 7<br>8   | 14<br>15   | 21<br>22  | 28<br>29  |
| 토 | 4<br>5          | 11<br>12 | 18<br>19 | 25<br>26   |           | 1<br>1.4        | 8<br>11  | 15<br>18 | 22<br>25   |           | 1<br>2.2        | 8<br>9   | 15<br>16   | 22<br>23  | 29<br>3.1 |
| 일 | 5<br>6          | 12<br>13 | 19<br>20 | 26<br>27   |           | 2<br>5          | 9<br>12  | 16<br>19 | 23<br>26   |           | 2<br>3          | 9<br>10  | 16<br>17   | 23<br>24  | 30<br>2   |
|   | 4월 (음력 3-4월)    |          |          |            |           | 5월 (음력 4-5월)    |          |          |            |           | 6월 (음력 5-6월)    |          |            |           |           |
| 월 |                 | 7<br>10  | 14<br>17 | 21<br>24   | 28<br>4.1 |                 | 5<br>8   | 12<br>15 | 19<br>22   | 26<br>29  |                 | 2<br>7   | 9<br>14    | 16<br>21  | 23<br>28  |
| 화 | 1<br>3.4        | 8<br>11  | 15<br>18 | 22<br>25   | 29<br>2   |                 | 6<br>9   | 13<br>16 | 20<br>23   | 27<br>5.1 |                 | 3<br>8   | 10<br>15   | 17<br>22  | 24<br>29  |
| 수 | 2<br>5          | 9<br>12  | 16<br>19 | 23<br>26   | 30<br>3   |                 | 7<br>10  | 14<br>17 | 21<br>24   | 28<br>2   |                 | 4<br>9   | 11<br>16   | 18<br>23  | 25<br>6.1 |
| 목 | 3<br>6          | 10<br>13 | 17<br>20 | 24<br>27   |           | 1<br>4.4        | 8<br>11  | 15<br>18 | 22<br>25   | 29<br>3   |                 | 5<br>10  | 12<br>17   | 19<br>24  | 26<br>2   |
| 금 | 4<br>7          | 11<br>14 | 18<br>21 | 25<br>28   |           | 2<br>5          | 9<br>12  | 16<br>19 | 23<br>26   | 30<br>4   |                 | 6<br>11  | 13<br>18   | 20<br>25  | 27<br>3   |
| 토 | 5<br>8          | 12<br>15 | 19<br>22 | 26<br>29   |           | 3<br>6          | 10<br>13 | 17<br>20 | 24<br>27   | 31<br>5   |                 | 7<br>12  | 14<br>19   | 21<br>26  | 28<br>4   |
| 일 | 6<br>9          | 13<br>16 | 20<br>23 | 27<br>30   |           | 4<br>7          | 11<br>14 | 18<br>21 | 25<br>28   |           | 1<br>5.6        | 8<br>13  | 15<br>20   | 22<br>27  | 29<br>5   |
|   | 7월 (음력 6-6(윤)월) |          |          |            |           | 8월 (음력 6(윤)-7월) |          |          |            |           | 9월 (음력 7-8월)    |          |            |           |           |
| 월 |                 | 7<br>13  | 14<br>20 | 21<br>27   | 28<br>4   |                 | 4<br>11  | 11<br>18 | 18<br>25   | 25<br>3   | 1<br>7.10       | 8<br>17  | 15<br>24   | 22<br>8.1 | 29<br>8   |
| 화 | 1<br>6.7        | 8<br>14  | 15<br>21 | 22<br>28   | 29<br>5   |                 | 5<br>12  | 12<br>19 | 19<br>26   | 26<br>4   | 2<br>11         | 9<br>18  | 16<br>25   | 23<br>2   | 30<br>9   |
| 수 | 2<br>8          | 9<br>15  | 16<br>22 | 23<br>29   | 30<br>6   |                 | 6<br>13  | 13<br>20 | 20<br>27   | 27<br>5   | 3<br>12         | 10<br>19 | 17<br>26   | 24<br>3   |           |
| 목 | 3<br>9          | 10<br>16 | 17<br>23 | 24<br>30   | 31<br>7   |                 | 7<br>14  | 14<br>21 | 21<br>28   | 28<br>6   | 4<br>13         | 11<br>20 | 18<br>27   | 25<br>4   |           |
| 금 | 4<br>10         | 11<br>17 | 18<br>24 | 25<br>윤6.1 |           | 1<br>윤6.8       | 8<br>15  | 15<br>22 | 22<br>29   | 29<br>7   | 5<br>14         | 12<br>21 | 19<br>28   | 26<br>5   |           |
| 토 | 5<br>11         | 12<br>18 | 19<br>25 | 26<br>2    |           | 2<br>9          | 9<br>16  | 16<br>23 | 23<br>7.1  | 30<br>8   | 6<br>15         | 13<br>22 | 20<br>29   | 27<br>6   |           |
| 일 | 6<br>12         | 13<br>19 | 20<br>26 | 27<br>3    |           | 3<br>10         | 10<br>17 | 17<br>24 | 24<br>2    | 31<br>9   | 7<br>16         | 14<br>23 | 21<br>30   | 28<br>7   |           |
|   | 10월 (음력 8-9월)   |          |          |            |           | 11월 (음력 9-10월)  |          |          |            |           | 12월 (음력 10-11월) |          |            |           |           |
| 월 |                 | 6<br>15  | 13<br>22 | 20<br>29   | 27<br>7   |                 | 3<br>14  | 10<br>21 | 17<br>28   | 24<br>5   | 1<br>10.12      | 8<br>19  | 15<br>26   | 22<br>3   | 29<br>10  |
| 화 |                 | 7<br>16  | 14<br>23 | 21<br>9.1  | 28<br>8   |                 | 4<br>15  | 11<br>22 | 18<br>29   | 25<br>6   | 2<br>13         | 9<br>20  | 16<br>27   | 23<br>4   | 30<br>11  |
| 수 | 1<br>8.10       | 8<br>17  | 15<br>24 | 22<br>2    | 29<br>9   |                 | 5<br>16  | 12<br>23 | 19<br>30   | 26<br>7   | 3<br>14         | 10<br>21 | 17<br>28   | 24<br>5   | 31<br>12  |
| 목 | 2<br>11         | 9<br>18  | 16<br>25 | 23<br>3    | 30<br>10  |                 | 6<br>17  | 13<br>24 | 20<br>10.1 | 27<br>8   | 4<br>15         | 11<br>22 | 18<br>29   | 25<br>6   |           |
| 금 | 3<br>12         | 10<br>19 | 17<br>26 | 24<br>4    | 31<br>11  |                 | 7<br>18  | 14<br>25 | 21<br>2    | 28<br>9   | 5<br>16         | 12<br>23 | 19<br>30   | 26<br>7   |           |
| 토 | 4<br>13         | 11<br>20 | 18<br>27 | 25<br>5    |           | 1<br>9.12       | 8<br>19  | 15<br>26 | 22<br>3    | 29<br>10  | 6<br>17         | 13<br>24 | 20<br>11.1 | 27<br>8   |           |
| 일 | 5<br>14         | 12<br>21 | 19<br>28 | 26<br>6    |           | 2<br>13         | 9<br>20  | 16<br>27 | 23<br>4    | 30<br>11  | 7<br>18         | 14<br>25 | 21<br>2    | 28<br>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기   |   | 소 | 대  | 입 | 우  | 경 | 춘  | 청 | 곡  | 입 | 소  | 망 | 하  | 소 | 대  | 입 | 처  | 백 | 추  | 한  | 상  | 입  | 소  | 대  | 동  |
|      |   | 한 | 한  | 춘 | 수  | 칩 | 분  | 명 | 우  | 하 | 만  | 종 | 지  | 서 | 서  | 추 | 서  | 로 | 분  | 로  | 강  | 동  | 설  | 설  | 지  |
| (양력) | 월 |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 6  | 7 | 7  | 8 | 8  | 9 | 9  | 10 | 10 | 11 | 11 | 12 | 12 |
|      | 일 | 5 | 20 | 3 | 18 | 5 | 20 | 4 | 20 | 5 | 21 | 5 | 21 | 7 | 22 | 7 | 23 | 7 | 23 | 8  | 23 | 7  | 22 | 7  | 22 |





##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사진=박승의 제공)

### 한국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다.

사할린 섬에 한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찍이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였다. 이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일본은 척박한 사할린섬의 석탄, 광산 개발, 석유 개발, 어업, 임업 등을 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심지어 유배 온 죄수들도 노동에 동원할 정도였다.

당시 조선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위태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기에 많은 농민과 육체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고 사할린도 그 중 하나였다. 다만 오늘날의 사할린 한인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 및 징용당한 이들과 그 후손이다.

### 사할린으로 팔려간 이쁜 고모

한국에 영구 귀국하고 십 년 만에 다시 밭아보는 나의 고향 전라도 공진리는 지난번 모습과 너무 달라져서 실망스러웠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터 주위는 20년 전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신축돼 주위 경관이 시멘트로 덮여 있다. 흙 내음과 함께 유유히 흐르던 개울 길과 촌네 길들은 두터운 아스팔트로 포장됐다.

강 건너 웅기종기 모여살던 한옥도 사라졌고 길옆에 줄지어 서있던 집들도 새로 지은 건물들로 탈바꿈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세월의 무상함을 뚝소 느꼈다.

잠시 눈을 감고 100년 전 공진리 마을을 상상해 봤다.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개울가에 서 미역을 감으며 물장난하는 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밭고랑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 선남선녀가 만나 신줏단지를 보내는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잔치, 사랑스러운 아내와 믿음직한 남편, 시부모님 모신 신집살림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족들.

그러나 그다음에는 일제의 강제 모집으로 마나면 이국땅 사할린(일 가라후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아팠다. 공진리 현지 주민들 몇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조상의 공진리 옛 모습과 밀양 박씨의 가문을 기억하지 못했다.

같이 살았던 이웃사람들과 아버지의 어린 시절 친구분들은 강제동원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고향땅을 다시 밟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나는 70년이 흘러 아버지의 고향 본가에 올 수 있었지만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서 너무 늦게 온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집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 할아버지의 죽음과 고모의 출가

19세기 말 공진리에서 나의 할아버지 박인환이 태어났다. 박인환은 형과 함께 아버지 박세식과 어머니 이 씨를 모시고 살았다. 박 씨 가문이 이 전라북도 땅에 뿌리를 박은지 이미 몇 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박인환은 김해 김씨 아가씨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셨다. 공진리에 땅도 10여 마지기가 있었고 앞산이 보이고 냇가가 흐르는 30평짜리 한옥에서 살았다. 추석이 지난 어느 날 안성면 관청에서 일본 경찰과 함께 조선총

## 사할린으로 팔려간 여인들...억울해도 어머니는 강했다

독부 직원이 와서 박인환을 찾았다.

“에이, 다카하라! 고치고이!”

조선총독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신고하고 일본 재정 관청이 그 소유권을 확인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일본이 조선에서 토지 등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땅이 너네들의 땅이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손 토지에요”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샀다는 기록도 없는데...

일제는 한국 농민이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여 신고를 거부한 토지는 물론,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유지를 국유화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만들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의 기초적인 기반이었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약탈한 것이었다. 농민은 오로지 관청의 지도가 명하는 대로, 배급받는 종자를, 지시받은 못자리에 뿌리고, 주어진 못줄로 모내기를 행하고, 정해진 날에 비료를 주고, 감매고, 명령받은 날에 피를 뽑고, 지시받은 방법에 따라 행할 뿐이었다. 거기에는 오로지 감시와 명령만 있을 뿐이었다.

소작권마저 박탈당한 농민들은 산으로 올라 화전농업을 하거나 전국을 떠도는 임용노동자가 되었다. 소작쟁의가 심화되면서 피폐한 농촌을 떠나 남부여대하고 두만강을 건너 만주벌판으로 집단 이주해야 했다.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은 할아버지는 급기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장남 박기수는 양아들로 큰아버지에게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박 씨 가족은 살아갈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집안의 입이라든 하나 덜기 위해 장녀 박봉순은 시집을 보내게 됐다. 그러나 무기력한 서방을 만나서 시부모와 시동생이 딸린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난생처음 마을을 떠나 어린 딸을 들쳐 업고 낯선 길을 나섰다.

그러나 일본농 앞잡이로 나선 마을 이장과 모집꾼의 감언이설에 홀려서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바다 건너 먼 길을 떠났다.

내가 1942년 사할린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은 고모가 사할린에 먼저 와서 정착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 고모가 우여곡절 끝에 사할린에서 만나서 살게 된 고모부는 일제강점기 건너와서 마누이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러준 이쁜 고모의 인생사는 슬프고 슬픈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이쁜이 소리를 듣고 자랐던 고모(봉순이)는 조선에 있을 때 시집갔는데 처음에는 행복했다. 남편은 똑똑하고 교양 있는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였단다. 그 남자는 누에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했다. 봉순이도 그 공장에서 18살까지 근무했는데, 아마 그 남자 쪽 누군가의 눈에 들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봉순이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그 남자가 뒤따라왔다. 대문 앞에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 그 총각은 봉순이의 동네에서 20리 떨어진 촌에서 살았다. 며칠 후 봉순이 뒤를 따라온 그는 용기를 내서 봉순이 집 마당에 들어가 “아가씨! 냉수 한 그릇만 줘요!”라고 애원했지만 봉순이는 눈치를 채고 방에서 나가지 않고 보내버린다.

그 후 매일같이 저녁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서 기웃거렸다. 고모에게 냉수는 얻

어 마시지 못했지만 사나이의 소원은 이뤄졌다. 몇 달 후 봉순이는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갖는데 몇 년이 지나 불행이 젊은 가족을 찾아왔다. 딸 둘 낳고 시부모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집에 안 붙어있고 자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가면 반년 만에 돌아오고, 두 달, 석 달 만에도 오고, 노름해서 돈을 따면 집에 들어와서 그 돈으로 며칠 살다가 나갔단다”.

### 모집광고에 속은 고모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고모네는 땅을 파서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웠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작쟁의로 농촌은 더욱 궁핍해지자 세상이 흥흥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불안해진 봉순이의 남편이 노름판에 빠지기 시작하여 얼마 안 가서 논도 집도 다 팔아먹었다.

그래서 봉순이는 처녀 적 다니던 누에 공장에 나가서 푼돈을 벌여 식구를 부양한다. 정말로 먹고살기 힘들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일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봉순이는 낙담했다.

그래서 큰딸은 시부모한테 맡기고 어린 딸을 등에 업고 고향을 떠나서라도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들과 어린 두 딸들 입에 풀칠이라도



▲ 1945년 해방직전 우리 가족: 뒷줄 왼쪽에서 2번: 박봉순 고모 (사진= 박승의 제공)

해서 살려야만 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 땅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일본에 가면 돈 많이 벌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한국을 휘돌았다. 그래서 이장이 안 내를 하여 마을 사람들과 봉순이는 면사무소에 갔다. 거기서 한기호라는 조선 사람이 젊은 여자들을 일본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는 고운 봉순이를 본 순간 백방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일본 땅 가면 그렇게 좋은 일 있은게 한 2년씩 벌여 가지고 오면은 좋지 않은가? 아이 하나 팔려 있는 사람께정은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고모는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가봅시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이를 업은 포대기 끈을 다시 꼭 당기며 결심을 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봉순이는 며칠 밤낮 동안 생각하고 생각했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 우는소리에 참다못해 아이 하나는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조건을 수락해 주는 모집에 응하기로 했다.

며칠 후 모집장소에는 낯선 여자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가 무주역을 떠날 무렵 창밖에는 큰딸을 손잡고 나오신 시부모들이 손을 흔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을 했다.

“아가, 아프지 말고 꼭 돌아오거라”

기내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봉순이는 어린 딸 정인이가 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영영 우는 것을 달래느라고 더욱 가슴이 아리고 쓰라렸다.

“아버님, 어머니! 그간 안녕히 계세요. 2년만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정님아! 우리 올 때까지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딸 잘 들어”

기차는 검은 연기를 하늘 높이 내뿜으면서 마치못해 정거장을 떠나는 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영원히 갈라 놓았다.

모집꾼 한기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 명의 여성을 일본 본토가 아닌 사할린으로 데려갔다. 무정한 사기꾼 한기호가 생전 처음 기차를 타본 시골뜨기 아낙네들을 화태에 끌고 가서 팔아먹을 작정이었다.

때는 한겨울이었다. 오오도마리항은 봉순이 일행을 모진 풍설로 맞이했다. 부두는 조선에서 온 친척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로 꽉 찼다. 한기호는 여자들을 기차로 도요하리에 데려와서 변두리에 있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집에 배치했다.

그 집에는 젊은 여자를 사러 온 홀아비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딸 그대로 인신매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가 하나 팔려있는 봉순이가 마지막으로 팔렸다.

봉순이보다 16살이나 더 먹은 40대 노총각(리밀선)이 봉순이를 큰돈을 주고 샀다. 다음 날 그는 봉순이와 딸을 데리고 오치아이서 130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돌아갔다. 일순간에 인간 사냥꾼에 속아 넘어간 봉순이는 노예의 삶을 지내게 되었고 안 살겠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돈을 못 구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불상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고모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살았는데 이렇다”고 한다.

이렇게 고모는 가라후토에서 처음 보는 사내와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섬에서 살게 됐다.

고모 박봉순은 1979년 포로나이스크시에서 사망하여 그녀의 유언에 따라 노보예 촌 공동묘지에 있는 김씨 어머니의 묘에 함께 안치됐다.

수천 명의 사할린 한인 여성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남편을 따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국 만 리 혹독한 사할린의 추위를 견뎌내면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켰다.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다 집에 돌아온 지친 남편을 받들어 주고 자식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묻히신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리고 멀리서 고모라고 부르고 뛰어가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던 이쁜 고모가 그림다.



▲ 1953년 할머니 김씨 (앞줄 중앙)의 고회연: 뒷줄 가운데에: 박봉순 고모 (사진= 박승의 제공)

[ 글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  
(출처: 경기신문, 2024년 11월 18일)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역 사회적 영역의 사업에 주요 초점을 둔 것과 관련해 2025년에는 엄마가 되기로 한 여성을 위한 여건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출산 장려, 모성보호, 아동의 성장기 보호, 가족 연구소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바로서 현재와 미래 우리 국가를 위해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과제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 2025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2025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яснил, чт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основной фокус работы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25 году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создании условий для женщин, решивших стать мамой.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оста рождаемости, охран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укреп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 это приоритетные социаль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настоящего и для будущего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так подчеркив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целе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 지난해 사상 처음 1백40만 이상의 승객 이용

2024년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을 144만8천527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이는 계획보다 5%가 넘는 수치로 공항당지 역대 가장 기록적인 승객 수였다고 공항 홍보실이 전했다.

승객 수가 이전에 비해 최대 수치에 도달했던 2023년과 비교할 때 공항 이용객 수는 9% 증가했다. 2023년에 공항 이용객 수는 133만2천673명이었고, 이러한 비교 수치가 더 높

았던 2022년과 비교해보면 그 수치는 22%로 이로써 승객의 흐름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관찰된다.

공항에서 일년 내내 승객 흐름의 꾸준한 증가가 관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여름 3개월간은 50만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가을과 겨울에 지속되었고, 지난해 마지막 달에는 10만3천40명의 승객이 항공 게이트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2024년 말쯤에는 항공화물의 운송량도 증가한 가운데 지난 12월에 공항터미널의 직원들은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 54만6천191kg을 운반했다. 12월 한 달만도 물동량은 1만5천731톤이나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기존 항공노선의 확장 및 강화와 관련돼 있다. 여름철 사할린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노워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지로 떠나는 가운데 총 30개의 노선이 운항되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초기부터는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대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이 특히 인기가 있었다.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일정에는 모스크바행, 크라스노야르스크행, 블라디보스토크행 추가 항공편이 편성되었다. 2024년에 운항된 항공기 수는 1만3천69대이다.

2025년에는 신공항청사 건설이 100% 완공되어 직원 편성도 완전하게 갖추어지면서 국제선 공항을 신공항청사로 이 전할 계획이다. 신공항청사는 중국발 항공기를 처음 맞이하는 데 승객 운송서비스 직원들은 이미 중국의 문화적 특성과 중국어 연구 교육과정까지 이수하여 준비가 완료됐다.

### Аэропо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первые обслужил более 1,4 млн человек за год

В 2024 году аэропо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служил 1 448 527 пассажиров.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на 5% превысил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и стал рекордным для комплек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оз

душной гаван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3 годом, когда аэропорт достиг предыдущих максималь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9%. В тот год услугами аэропорта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 332 673 человек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2 годом, когда цифры были еще выше, на 22%, наблю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в аэропорту наблюдался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это стало летом, когда за три месяца было обслужено более полу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Эта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лась и осенью, и зимой, несмотря на традиционно низкий сезон. В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года через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103 440 пассажиров.

Вместе с тем, к концу 2024-го выросли и объемы грузов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За декабрь сотрудники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иняли и отправили 546 191 килограмм почты и груза. За 12 месяцев — 15 731 тонну.

Увелич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прежде всего, связано с расширением и укреплением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маршрутов. В летний сезон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с острова могли летать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расноярск, Иркутск, Новосибирск,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Всего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коло 30 направлений.

С началом осенне-зимнего периода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ными стали рейсы в столицу России, Сибирь и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в расписание полетов аэропорта были добав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в Москву, Красноярск и Владивосток. В 2024 году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обслуженных самолетов составило 13 069.

В 2025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ереве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йсы в здание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мещений завершено на 100%. Штат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

Первыми воздушная гавань примет рейсы из Китая, поэтому сотрудники службы организации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уже прошли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и языка Поднебесно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sup>2</sup>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РАССРОЧКА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Р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